현지 특색이 뚜렷한 지역 관광지로 일떠세울 터

— 길림룡정시흥변부민교육양성기지에서 무르익는 리춘해 총경리의 꿈

▲ 리춘해 총경리

"혹독하게도 길게 느껴졌던 몇번의 겨울들이였습니다. 특히 관광업에 종사하는 저희로서는 너무나 치명적이였지요. 그러나 이번 겨울은 달랐습니다. 전염병이 모두 지나간 것도 있지만 기지를 찾아 '견학'온 학생들 덕분에 행복한 '비수기'를 보낼 수 있었으니깐요."

관광 시즌이 막 시작된 요즘 눈코뜰 새 없는 일상을 보내지만 날따라 늘어가는 관광객들을 맞이하다 보면 발걸음을 다그칠 수밖에 없는 리유다.

길림룡정시흥변부민교육양성기지 리춘해 총경리는 바쁠 때가 가장 신난다는 '워커홀릭(工作狂)'이다.

한팀이 가면 또 한팀이 몰려오고… 소학생에서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교육양성기지를 찾는 학령층도 다양한데 현지 학교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불원천리 먼곳에서 온 대학생들도 수두룩하다.

"예전에는 단체관광객을 접대할 수 있는 큰 호텔이나 숙박시설들이 없어서 애를 먹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였습니다. 현재는 관광 코스와 전시관, 숙박시설이 일체화되여 관광객들의 출행에 더없이 편리하지요. 고급 호텔과는 비할 바가 못되지만 향촌에 세워진 숙박시설이라고 해서 허술할 거라는 편견을 가지시면 안됩니다."라며 자신있게 객방 문을 열어보이는 리춘해 총경리다.

룡정시 개산툰진에 자리잡고 있는 길림룡정시흥변부민교육양성기지는 2022년 8월에 정식으로 등록을 마치고 사용에 교부되였는데 총 4층 구조로 이루어져있으며 부지면적 2,000평방메터에 사용면적 2,900평방메터로 전시관, 식당,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이 구전하게 갖추어졌으며 총 52개의 객실에 120개 침상이 구비되여 있고 동시에 150명이 함께 식사할 수 있다.

'당기의 인도·개산툰의 꿈(党旗领航·筑梦开山)' 전시관은 홍색애국주의교양과 개산툰진의 력사, 문화로 구성된 애국주의교양훈련기지로 연변 및 성내 기업사업단위의 훈련 접대, 당건설 활동 등을 진행해오고 있다. 리춘해 총경리의 소개에 따르면 이 기지는 홍색자원으로 홍색문화를 전파하고 홍색교육을 참답게 하며 홍색유전자를 전승하고 홍기거(红旗渠) 정신과 그 주변의 홍색교육자원을 둘러싸고 주제가 두드러지고 특색이 뚜렷한 현장교육과 체험교육 과정을 만들고 홍색정신과 그 계승을 주선으로 하는 홍색교육 활동방안과 홍색로선, 변경 농촌 관광로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 + 홍색 + 변경 + 산업 + 관광'의 장점을 리용한 길림룡정시흥변부민교육양성기지는 연구교육훈련을 추진하고 농촌 당원의 자질을 향상시키며 농촌관광을 촉진하고 산업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발전 구상으로, 당건설강습, 농촌진흥강습, 농업과학기술강습, 혁명교육, 확장훈련, 5동교육(五同教育), 대학교 연구교육 등을 강습 방향으로 개산툰진 경제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산간 특색이 선명한 전국 '변경모범향진'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리춘해 총경리에 따르면 개산툰진은 경제가치, 정치가치, 사회가치, 문화가치와 생태가치를 충분히 발굴하고 전시하여 단일한 관광 사고에서 벗어나 연구학습, 관광과 농촌의 경제, 생태, 문화, 관리 등 방면의 심층적인 융합을 촉진했다. 연구학습, 관광 등 새로운 사업 방식의 개발을 통해 마을 집체경제를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취업하게끔 도왔다. 현재까지 2만여명의 관광객이 개산툰을 찾았는데 그중 3,000여명 연구학습단체가 농지와 마을을 찾아 평소 접하지 못했던 지식을 배우고 고향의 특색문화를 리해하는 동시에 학생들에게 문화적 자신감을 더해주었다.

리춘해 총경리는 "당지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뒤받침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하다."며 "향후에도 홍색교육 정품 수업 과정을 계속해 연구하고 최적화 관리를 강화하며 환경과 봉사 수준을 높이고 부단히 모색하여 현지 특색이 뚜렷한 지역 관광지로 일떠세우련다."고 신심 가득히 말한다.

/ 김영화기자

▲ 개산툰 광소촌 어곡전을 돌아보고 있는 관광객들

국내 여러 은행 예금금리 인하해 실물경제 지원

최근 국내 여러 은행들이 잇달아 예금금리를 인하하고 있다.

최근 공시된 예금금리 조정 상황을 살펴보면 일부 은행의 3년·5년 만기 정기예금금리가 종전과 같거나 '중·단기 예금금리보다 낮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수의 은행과 연구기관은 은행의 예금 비용 감소, 순리자 마진 축소 완화를 위해 향후 예금금리 인하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은행의 부채 비용을 줄이고 실물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달 들어 계림은행 등 다수의 중소은행이 예금금리 인하를 정식 발표했다. 교통은행, 하문은행, 광대은행을 포함한 약 10개 은행 역시 양도성 예금 증서, 스마트 통지 예금 등 부분적 상품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예금상품 금리를 줄줄이 인하하는 배경에는 고금리 예금의 비률을 낮춰 부채 비용을 줄이고 순리자 마진 축소의 압력을 완화하려는 은행의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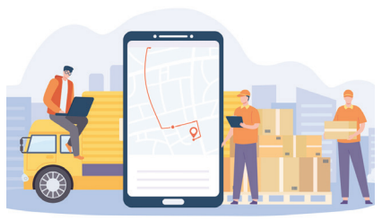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우리 나라 상업은행의 순리자 마진은 1.69%까지 떨어져 처음으로 1.7% 선이 무너졌다. 금융정보업체 윈드의 통계에 따르면 1분기 순리자 마진을 공시한 41개 A주 상장은행중 39개 은행의 순리자 마진이 전년 동기 대비 축소됐다.

초련금융 수석연구원 관계자는 최근의 스마트 통지 예금, 양도성 예금 증서 판매 중단 등 일련의 조치는 정부의 예금금리 인하 정책 지침에 부합하며 은행 부채 비용을 지속적으로 절감시켜 실물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예금금리가 계속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4월말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금리와 지급준비률 등 정책수단을 잘 활용해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을 늘이고 사회 종합융자 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한 다수의 은행 고위 관계자도 년례 실적보고서 발표회에서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부채원가 통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향후 금리 인하 및 지급준비률 하락 전망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 신화사

1월—4월 택배업무량 508.1억건



1월부터 4월까지 우정업계 배송업무량은 루계로 569.5억건에 달해 동기 대비 21.7% 성장했다. 그중 택배업무량은 루계로 508.1억건으로 동기 대비 24.5% 성장했다.

1월부터 4월까지 같은 도시 택배업무량은 루계로 47.5억건을 완수해 동기 대비 22.6% 성장했다. 타지역 택배업무량은 루계로 449.9억건을 완성해 동기 대비 24.7% 성장했으며 국제/향항오문 택배업무량은 루계로 10.8억건 완성해 동기 대비 25.2% 성장했다.

1월부터 4월까지 우정업계 업무수입(우정저축은행 직접영업소득 제외)은 총 5265.1억원으로 동기 대비 11.3% 성장했다. 그중 택배업무수입은 루계로 4211.3억원으로 동기 대비 16.9% 성장했다.

4월 우정업계 배송업무량은 152.2억건으로 동기 대비 20.4% 성장, 그중 택배업무량이 137.0억건으로 동기 대비 22.7% 성장했다.

/ 인민넷

길림성 경제운행 질적 제고 두드러져

지역생산총액(GDP)의 통일결산 결과에 따르면 1분기 길림성 지역생산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6.5% 늘어났는데 이는 전국의 평균보다 1.2%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4월 27일까지 발표된 1분기 경제데이터를 보면 29개 성급중 길림성의 증속이 1위를 차지했다.

이는 길림성 1분기 경제 증속이 련속 2년간 전국의 앞자리를 차지한 셈이다.

공업경제 쾌속발전

중국제일자동차그룹유한회사에 따르면 올 1분기 이 회사의 완성차 판매량은 74.3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9.5% 늘어났다. 자주브랜드 완성차 판매량은 20.8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46.1% 늘었다.

자동차산업은 길림성의 기둥산업이다. 지난해부터 길림성은 자동차산업 군체의 '새 단계' 공사를 깊이있게 실시해 관련 대상건설의 템포를 다그쳤다. 올해 1월 하순, 아우디 Q6 e-tron 첫 예비비준 차량이 장춘시아우디제일신에너지차유한회사 장비생산작업장에서 출하됐다. 이는 이 차량 생산이 본격적으로 가동됐음을 뜻한다. 관련 책임자는 "이 대상건설의 준공으로 아우디가 국내 첫 전문생산 순수전기자동차 생산기지로 발돋움하게 된다. 년간 생산능력이 15만대에 달할 계획인데 향후 PPE 플래트홈을 통해 국내시장에서 아우디 순수전기자동차 세가지 차종을 년말전까지 본격 출시하게 될 전망이다."고 소개했다.

1분기 길림성 제2산업의 증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9.5% 늘었는데 이는 전국의 평균보다 3.5%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그중 길림성의 규모이상 공업 증가치가 전년 동기 대비 10.4% 높아 증속이 전년 동기 대비 2.8% 포인트 높았다.

자동차 생산판매량이 대폭 증가한 외 올 1분기 동북로공업기지중의 하나인 길림성은 고첨단 장비 제조 분야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

궤도교통장비 건설 면에서 새로운 진척을 가져왔다. 3월 21일, 중국객차장춘궤도객차주식유한회사에서 자주적으로 연구, 제조한 글로벌 첫 수소에너지 객차가 시험라인에 성공해 시속 160키로메터로 시운행에 들어갔다. 이는 수소에너지동력 궤도교통 분야에서 이룩한 새로운 돌파라고 할 수 있다. 올 1분기 길림성 도시궤도교통 차량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16.2% 늘어나고 궤도객차 교부량도 전년 동기 대비 29.2% 늘어났다.

신에너지 장비 제조가 빠르게 성장했다. 최근 몇년간 길림성에서는 성내 서부지역의 자원 우세에 립각해 '륙상풍광삼협' 프로젝트를 크게 실시했고 신에너지 대상건설을 적극 추진했다. 1분기 길림성 풍력발전조합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76.3% 늘어나고 송원신에너지, 삼일풍력발전 등 신에너지 장비 제조 기업들이 길림성에서 빠르게 발전했다.

또 기타 중점산업의 인솔 역할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 1분기 길림성 전자정보산업의 증가치는 42.4% 이상을 실현했는데 야금건재, 방직공업, 의약산업의 증가치가 10% 이상을 이룩했다.

대상건설 착실히 추진

장춘자동차경제기술개발구 제일자동차 볼디신에너지 동력건전지 대상 1기 건설 생산작업장, 로동자들마다 분망한 모습이다. 지능화 생산라인을 통해 건전지가 출하하고 사전에 설치된 경로를 통해 건전지 박스가 무인차량을 통해 수송되고 있었다.

이는 중국제일자동차와 비야디에서 협력한 동력건전지 대상으로 180억원이 투입됐으며 올해 2월 2일에 정식 생산에 투입됐다. 이 대상은 동북지역의 첫 신에너지차 동력건전지 전략기지로서 3기로 나눠 건설된다.

볼디건전지 등 일련의 중점대상이 륙속 생산에 투입되면 길림성 경제발전에 새로운 력량의 지주산업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를 분석하면 1분기 길림성 고정자산 투입은 6.3% 늘어났는데 이는 전국의 평균보다 1.8% 포인트 높다. 전 성적으로 1억원 이상의 대상이 새로 착공됐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7% 늘어났다.

현재 장춘 도시권 교차선 2기 대상의 시공현장 또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현장 시공일군들은 올해 8월말 주간선의 순조로운 준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해당 책임자는 2기 건설이 준공되면 이 교차환로 고속도로 동쪽 교차선이 전면 개통되는바 이는 대중들의 안전 및 쾌속 출행에 편리하며 나아가 장춘시와 길림성의 전면 진흥, 발전 추동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상건설 착공 템포가 빠르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올해 년초부터 전 성에서는 5,000만원 이상의 대상건설 1,677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16개 늘어난 수치다. 아우디제일신에너지차, 길림석유화학 전환승격 대상, 길서기지 로고직류 140만키로와트 외부수송 대상 등 25개의 50억원 이상 중점대상건설이 속도를 내고 있다.

투자 구도가 개선됐다. 길림성에서는 현재 과학기술 함량이 높고 인솔능력이 강하며 발전 잠재력이 충족하고 수익창출 및 경제효과가 뚜렷한 산업 대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분기 전 성의 산업 투입률은 전체의 60%를 차지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7% 포인트 높다. 고신기술산업 투입 증가률은 12.3%에 달했는데 이는 전국의 평균 수준보다 0.9% 포인트 높다.

문화관광 소비 열기 상승

4월 6일, 아시아에서 단체 규모가 가장 큰 스키리조트 길림성 북대호스키리조트가 정식으로 오픈됐다. 길림성 지역 '세계 스키 황금위도벨트' 또한 스키애호가들이 즐겨 찾는 세계 3대 기지중 하나이다. 최근 몇년간 길림성에서는 자체 우세에 립각해 빙설관광강성을 힘써 구축하고 있다. 현재 관광스키장 74곳, 스키활주로 351갈래, 스키활주로 면적이 1,338헥타르에 달하는 가운데 길림성의 단일 최대 접대량은 연 15만명에 도달, 이는 전국적으로 스키 접대 규모가 가장 큰 성급에 속한다.

1분기 빙설관광의 열기와 휴일경제 효과의 배경하에 전 성의 문화관광 소비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이다. 1분기 국내 관광객 접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95.4% 늘어났고 국내 관광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07.1% 늘었다.

빙설, 눈감상, 온천 등 특색 있는 빙설 브랜드는 물론 가족려행, 문화관광, 민속관광, 건강양생관광, 연학관광 등 다양한 관광상품으로 길림성 문화관광산업 등 봉사업 발전을 힘껏 추동하고 있다. 길림성내 각지 관광시장이 뜨거워지자 여러 관광기업들도 추세에 발맞춰 다양한 경영주체를 설립해 영업환경을 최적화하고 있다.

도문시세무국에서는 '세무 제1수업' 등 업무를 새로 제작해 온라인으로 일대일 봉사를 추진하고 오프라인에서 집중수업을 펼쳐 세금 납부 기업에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등 봉사를 펼쳤다.

1분기 길림성에서는 또 문화관광 IP 장백산, 챠간호(查干湖) 등이 '새 영예'를 수여받았다. 3월 27일, 장백산세계지질공원이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지질공원 인터넷망에 입선됐다. 2월 6일, 송원시 전고르로스현 차간호풍경구가 국가 5A급 관광풍경구로 확정됐다. 이로써 길림성 5A급 풍경구는 8곳으로 길림성 관광목적지의 흡인력이 더욱 강력해졌다.

/ 경제일보

主管 / 主办：吉林日报报业集团 出版单位：吉林朝鲜文报社 印刷：吉林日报社印刷厂 地址：长春市绿园区普阳街2366号 邮编：130011 传真：87627100 广告许可证：2200004000046 定价：180元 / 年
编务办：87619812 全媒体中心：87616700 发行广告管理部：87627091 延边记者站：（0433）2518860 吉林记者站：13069156625 梅河口记者站：13604447151 白山记者站：（0439）8224384 首尔分社：+82（02）7868089